

지역 소식통

정읍시, 14개 부서 대상

성별영향평가 자문 진행

정읍시가 최근, 시청에서 14개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 내 성차별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2026년 성별영향평가 대면 자문(컨설팅)'을 실시하며 양성평등 행정 구현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 소속 전문 상담가(컨설턴트) 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14개 부서 14개 사업 담당 공직자들과 일대일 맞춤형 방식으로 상담을 가졌다. 구체적으로는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성평등 개선 과제를 발굴하도록 도왔다.

참석자들은 성차별 발생 원인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해 정책 담당자들의 실무 능력을 끌어올렸다.

시는 이번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서 내용과 개선 사항을 실제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나아가 조례와 규칙을 비롯해 중장기 사업계획, 주민 홍보사업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평가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적극 당부

고창소방서(서장 이경승)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과 전기 기적 요인,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주행 중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차량 화재는 연소 확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소화기를 활용한 신속한 진압이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또한 소화기는 운전자가 쉽게 꺼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해야 하며, 압력계지 상태와 사용기한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중기부 공모 예비 선정 쾌거

부안 젓갈 기반 K-소스 산업 고도화·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지역 경제 활성화 청신호

부안군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예비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화된 연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 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전국에서 총 36개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17개 시군구가 예비 선정됐다.

특히 전북도 내에서는 부안군이 유일하게 선정되며 부안 젓갈 산업의

혁신 가능성과 사업의 독창성을 높게 인정받았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부안군의 사업 명칭은 '부안 젓갈 기반 K-소스 산업 고도화 및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부안의 대표 연고산업인 젓갈을 현대적인 K-소스 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포부가 담겨있다. 이번 사업은 전북 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으로 사업을 이끌며,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참여기관으로 함께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관내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신제품 개발 지원 △품질인증(HACCP 인증, 특허출원 등) △제조 공정 개선 △공동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제품 개발부터 생산, 마케팅, 유통에 이르는 전 주기적 맞춤형 지원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젓갈 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내장상동 청소년문화체육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부인 정중순 여사와 함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 사전투표 행사

"정읍 발전 위해 시민 여러분들도 꼭 투표해 달라"

이학수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내장상동 청소년문화체육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부인 정중순 여사와 함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이 후보는 사전투표를 마친 뒤 "선거는 시민의 힘으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과정"이라며 "정읍의 발전을 이어나가고,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선택에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년 동안 시민과 함께 정읍의 변화를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정읍의 대도약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전투표와 본투표에 꼭 참여해 시민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으며, 함께 자리한 정중순 여사도 "한 표 한 표가 정읍의 미래를 만드는 힘이 된다"며 많은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한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이 후보는 "높은 투표율은 성숙한 지방자치와 시민 참여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읍의 미래를 위해 시민 모두가 투표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취재반

'지리적표시 고창 명품수박' 롯데백화점서 첫 선

서울 본점을 비롯 수도권 7개 지점서 판매... 무게 7~9kg · 비과과 당도선별 13브릭스 이상 선별

전북 고창군이 '고창수박'의 지리적표시 등록 2주년을 맞아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을 비롯한 수도권 7개 지점에서 '지리적표시 고창 명품수박' 특별 홍보 및 판매를 시작했다.

지난 29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롯데백화점 본점(서울 중구 남대문로81)에서 지리적표시 고창명품수박 홍보관측전이 열렸다.

행사에는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부군수)을 비롯해 김연호 고창군수박연합회장, 고창군수박연합회원, 롯데백화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리적표시 고창수박의 우수성과 브랜드 가치를 적극 홍보했다. 또한, 무료 시식행사와 수박 카빙 전시, SNS 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소비자 참여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돼 현장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 백화점 입점은 '지리적표시 고창수박'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고창수박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엄격한 품질 기준을 통과한 프



리미엄급 '고창 명품수박'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망에 선을 보이며 명품 농산물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고창 명품수박'은 하우스 재배 수박 가운데 무게 7~9kg, 비과과 당도 선별 13브릭스 이상 기준을 충족한 최고급 수박이다. 고창군수박연합회원들 중 엄선된 농가에서 생산하며, 지리적

표시 품질 기준에 따라 재배·선별된 프리미엄 수박만 출하된다.

한편, 이번 입점 행사를 시작으로 고창군은 지리적표시 고창수박의 명품화와 전국 유통 확대를 지속 추진해 대한민국 대표 프리미엄 수박 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 연찬회 우수상 수상

재무과 이재인 주무관,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개선방안' 주제로 발표

부안군청 재무과 이재인 주무관이 2026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한 지방세 연찬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28일 '진안치유숲'에서 열린 이번 연찬회에서 이재인 주무관은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심사위원들의 높은 관심과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 연찬회는 지방세의 제도개선과 신세원 발굴을 위한 행사로 이날 행사에서는 도내 시·군에서 제출한 14건의 연구과제 중 1

차 서면 평가로 선정된 6건의 우수과제를 발표하여 순위를 정하였다.

재무과 관계자는 "재무과 직원들이 지방세 연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며 "앞으로 적극적 업무연찬으로 군 발전을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방선거 사전투표소 현장 점검 나서

유호연 정읍시장 권한대행

유호연 정읍시장 권한대행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28일 수성동(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과 웅동면(웅동전통문화생활관)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 장비와 동선을 직접 점검하며 안전한 선거 준비를 마쳤다.

이날 유 권한대행은 투표 운용 장비를 비롯해 기표대와 장애인 편의시설 등 설치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이어 모의 사전투표에 직접 참여해 투표용지 출력부터 유권자 이동 경로까지 일련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했다.

유 권한대행은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법정 선거사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11개 반 22명의 투표소



점검반을 구성해 사전투표소와 본투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이끌고자 읍·면·동 이장과 통장 회보, 현수막, 전광판, 누리소통망(SNS), 공식 누리집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투표를 독려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